

“광융합 산업에 성과 남겨 영광...인생 3막 시작할 것”

오늘 퇴임 한국광산업진흥회 조용진 상근부회장

“공직자로 살아오던 제가 광융합 분야 기업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겠습니다.”

7일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제5·7대 상근부회장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소회를 밝혔다.

조 부회장은 “광산업은 광주 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면서 “광융합 산업 국제교류협력 및 마케팅 지원, 정보 제공 사업 등을 통해 업계 유대 강화 및 공동 이익 도모에 노력했다”고 지난 9년간의 재임 기간을 돌아봤다.

그는 “퇴직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 인생이란 1막, 2막, 3막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인생 1막은 지난 1977년 공직에 입문하면서 시작됐다. 광주시청 공보관,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광주위생매립장·상무소각장, 동곡동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굵직한 시 사업을 해결했다. 특히 1998년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사업 당시에는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무난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집단 민원 해결 전문가’로 불렸던 그는 정년을 3년 앞두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접었다. 이후 2013년 4월,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생 2막을 열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소통’을 가장 중요시

재임 9년간 국내 광산업 발전 기여

‘광기술 개발 지원법’ 제정 돋보여

“정부·광주시, 많은 관심·지원을”

여겼고 업계에도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고객 만족 경영’을 약속했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와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전담기관 지정 및 관련 예산 확보 ▲광산업진흥회 역할 전국화 ▲감사원 감사결과 우수기관 선정 ▲광관련 국가직무 표준 개발 및 전문인력양성교육 및 구인·구직 매칭,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성과를 냈다.

조 부회장은 “그 중에서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법’을 제정시켜 광융합산업을 국가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가장 보람찼다”면서 “이를 근거로 우리 진흥회가 ‘광융합발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고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운영측면의 성과 또한 기억에 남는다. 취임 초기 불과 10여 명이었던 직원을 30명으로, 30억원 정도였던 예산을 100억 이상으로 성장시켜 내부역량을 10배 이상 강화시킨 혁신적 변화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지난 2000년도의 광산업진흥회와 현재를 비교해볼 때 광주의 광산업체가 48개에

서 현재 320개사로 늘어나고 매출액은 1,136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종사자는 1,900여명에서 8,400명으로 늘어난 수치가 그의 노력을 증명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진 진흥회 직원들과 관련 업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 광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광융합 분야 조합 육성 사업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광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떠난 것”이라며 “하지만 건립에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새로 부담하는 상근부회장과 직원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소망했다. 또 “일부에서는 ‘광산업은 발전이 정체됐다’고 말하지만 이는 광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며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한다면 광산업의 미래는 어떠한 산업보다도 밝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광주시에서도 앞으로 광융합 산업 및 진흥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부회장은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답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제2막의 인생을 끝내고 새로운 제3막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고자 한다”며 “오랜기간 공직 생활과 진흥회 업무로 가족은 물론 도움을 줬던 지인들도 자주 만나지 못했다.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부회장의 퇴임식은 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광산업진흥회 3층 강당에서 열린다.

/홍승현 기자



광기술원, 비접촉 레이저 검사 기술 개발

교량 안전진단 변위계측 등 접근 어려운 구조물에 활용

한국광기술원은 레이저 센서를 이용해 교량 하중 변위 실시간 계측 등 안전진단을 위한 ‘비접촉 레이저 검사 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의 교량 안전진단을 위한 변위계측은 접촉식 센서를 주로 사용하며, 고정된 하나의 기준점으로부터 계측지점의 위치 변화를 파악하기 때문에 교량 하부 환경(하천, 바다, 도로, 철도 등)에 따라 설치가 어렵거나 제한됐다. 또한, 교량과 같은 거대 구조물의 경

우 넓은 범위 계측을 위한 다수의 센서가 필요해 케이블 설치, 신호 오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설치 위험성과 장시간 교통불편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능형광IoT연구센터 김경화 박사팀과 ㈜미래건설안전이 협업을 통해 ‘레이저 센서 계측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원거리에서 사용 가능한 비접촉 방식으로 교량 안전진단을 위한 재차시험 방법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아울러 원거리에서도 정밀 계측이 가능하고, 구조가 단순해 다양한 노이즈 요인으로부터 강건한 계측이 가능하며, 설치 및 해체 작업이 간단하다는 장

점이 있다.

개발된 기술은 교량뿐만 아니라 접근이 어려운 구조물의 변위 계측에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스템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호 한국광기술원 지능형광IoT연구센터장은 “이번에 개발한 교량 안전진단 기술을 통해 재난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분야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광기술원은 광-ICT 융합기술 거점기관으로서 국내 시설물 안전진단 기술 관련 분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은행, ‘펀드가입하고 문화상품권 받고’ 이벤트

광주은행이 오는 9월 30일까지 ‘펀드가입하고 문화상품권 받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투자 미국배당 귀족 증권투자자신탁H(주식)’의 6종의 펀드 중 광주은행을 방문, 또는 인터

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해 월 10만 원 이상 적립식 또는 500만 원 이상 거치식으로 가입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다.

적립식 펀드 가입 시에는 적립금액 10만 원 당 5,000원 씩 최대 2만 5,000

원, 거치식 펀드 가입 시에는 신규금액 500만 원 당 5,000원 씩 최대 5만 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오는 11월 중에 제공되며, 이벤트 응모는 펀드 가입 시 자동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TP, 올해 국비사업 2천억 이상 유치 전망

성장동력 확보·일자리 창출

광주테크노파크가 올해 2,000억원 이상의 국비사업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7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광주TP는 2020년 이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국비 사업을 유치해 오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23억원, 2021년 1,895억원이며 올해는 2,000억원의 예

산확보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022년도 상반기에만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기업공동연구활용센터 구축사업(211억원) ▲AI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169억원) 등을 통해 735억원의 국비사업을 유치 확정했다.

하반기에는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사업(428억원) ▲AI 기반 제조산업 지능화 공정혁신센터 구축사업(355억원) ▲저탄소·고부가 전극재제조 혁신 기술개

발사업(282억원) 등 26개 사업을 유치 중이며, 이 중 유치가 확실시 되는 4개 사업을 감안할 경우 약 2,000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3년 연속 1,000억원 이상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미래 전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며 “광주가 민선 8기 새로운 광주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 광주테크노파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남구와 함께 내 일(JOB)을 잡(JOB)아 보자!

- 취업상담센터**
 - 취업연계중합서비스 (구인구직등록, 상담, 취업알선)
 -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 일자리박람회**
 - ON-OFFLINE 박람회
 - 맞춤형 취업컨설팅
 - 구인기업정보제공
- 공공일자리 추진**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생계안정
 -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

광주광역시남구 취업상담센터 607-2672